

아르코예술극장으로 '금의환향'하는 뮤지컬 〈爾(이)〉



아르코예술극장은 25년의 역사 속에 공연된 작품들 중 새로운 시도와 실험으로 제작되는 공연들을 주목하여 기획프로그램인 '금의환향 시리즈'로 모아낼 계획이다. 그 첫번째 작품인 〈爾(이)〉(원작 김태웅)는 2000년 11월,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현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연극으로 초연된 뒤 영화로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다시 뮤지컬로 제작되어 새로운 관객을 맞이한다. 아르코예술극장·서울예술단·문화방송의 공동주최로 오는 11월 10일-12월 3일까지 만 6년 만에 원작의 첫 출산지, 연극 〈爾(이)〉가 초연되었던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아르코예술극장 금의환향 시리즈 1'로 무대에 오른다. / 문의 02-760-4640

아르코예술극장 송년프로그램 〈겨울이야기〉,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아르코예술극장은 매년 12월, 좋은 공연과 함께 기쁨과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송년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가족과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되어 자신과 주위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송년을 디자인하는 아르코예술극장 2006 송년프로그램은 세익스피어 원작을 현대무용과 노래가 결합한 댄스뮤지컬로 풀어낸 틱마루 무용단의 〈겨울이야기〉가 대극장에서 12월 21일-25일, 올해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 작품상과 극본상을 수상한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가 소극장에서 12월 12일-2007년 1월 1일 상연된다. 두 작품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을 배경으로 하여 사람들 간의 감동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해피엔딩 작품이다.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드로잉 에너지 Drawing Energy'

아르코미술관에서는 2006년도 마지막 주제기획전으로 '드로잉 에너지'전(11.3 - 12.14)을 개최한다. '드로잉 에너지'전은 한국현대미술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진작가들의 그룹전으로, 드로잉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작가들이 드로잉에 대한 일차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가치로 드로잉을 제안한다. '드로잉이 무엇인가'라는 드로잉의 근본적 본성에 대한 물음과 '왜 지금 이 시점에 다뤄지는가'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전시가 이루어진다. 초대작가들(김을·김태현·배종현·이기철·이미혜·이순주·임동식·임자혁·함연주·황혜선)은 미술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드로잉 작업을 진행해온 작가들로, 이번 전시를 통해 자신의 드로잉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지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진전된 양상의 드로잉을 제시한다. / 문의 02-760-4602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 문화예술단기연수 참가 안내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에서 문화예술단기연수 프로그램으로 무대예술전문인연수(기계초급과정)와 제2차 조형예술워크숍을 실시한다. 문화행정공무원 및 문화기관 종사자, 문화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워크숍은 예술의 창의성을 문화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특화된 예술체험 위주로 꾸러졌다. 무대예술전문인연수(기계초급과정)는 11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조형예술워크숍은 11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한 후, 팩스나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http://www.arko.or.kr> / 문의 02-760-4669

명강사의 해설과 함께 하는 아르코예술정보관 '고전음악강좌'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된 아르코예술정보관의 클래식음악감상 프로그램인 '고전음악강좌'가 12월 19일까지 진행된다. 1987년에 개설하여 클래식음악 향수층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서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수강한 회원이 여럿 있을 만큼 해마다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해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도 분야별 전문강사진의 곡해설과 이론강의, 체계적인 음악감상 안내 등 흥미와 깊이가 어우러진 강좌가 단계별 과정인 기초, 심화, 탐구 세 개의 반으로 나뉘어 진행중이며 특히 탐구과정인 목요반은 올해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여 '천재의 혼, 모차르트 집중탐구'로 1년간 진행된다. 장소는 아르코예술정보관(서초동 예술의전당 내) 3층 심포니홀이며 수강료는 250,000원(1년)이다. / 문의 02-760-4683

아르코예술정보관 '민족성악을 찾아서' 강좌

아르코예술정보관에서 2006 하반기 (일요예술감상회) '민족성악을 찾아서'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프랑크푸르트 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윤이상의 가르침을 받은 윤인숙(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원, 단국대 출강)의 지도로 민족성악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러진다. 9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아르코예술정보관(예술의전당 내) 3층 심포니홀에서 이루어진다.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40명 이메일(soonil@arko.or.kr)로 접수받는다. <http://library.arko.or.kr> / 문의 02-760-4680

2006 인미공 화두 : 생각은 입에서 만들어진다

〈인미공 화두〉는 시각문화와 사회 전반의 긴박하고도 필요한 이슈를 주목하여 살펴보기 위해 인사미술공간이 매해 마련하는 '복합형' 프로그램이다. 2006년 11월 10일-12월 10일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작가 그룹 빅반데폴과 서울의 작가 정해승이 참여하여 전시, 워크숍, 토크, 출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에게 올해의 화두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각은 입에서 만들어진다'는 올해의 화두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시장 중심의 가치를 예술가의 입장에서 재고해 보기 위해, 또 다른 경제가치와 구조 그리고 주체를 제안해 보려는 것이다. / 문의 02-760-4728

‘카셀 도큐멘타’에서 만나게 될 시각예술비평지 볼(BOL)



인사미술공간에서 발행한 시각예술비평지 <볼(BOL)>이 <도큐멘타 12 매거진> 프로젝트에 초대받아 참가한다. 독일의 작은 도시 카셀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도큐멘타 12’는 일명 ‘카셀 도큐멘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대미술을 선도하는 개념을 양산하고 토론과 담론 형성을 중시하는 전시내용으로 여타의 비엔날레와 뚜렷이 구별된다. <도큐멘타 12 매거진>은 2007년 6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최될 예정.

시각예술비평지 <볼>은 2005년 겨울에 창간되어 시각문화와 사회 전반의 흐름을 교차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각 영역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아티스트들의 텍스트 및 지면작업(artist's page)을 통해 논의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다. 국내외 주요 서점 및 온라인 서점 등에서 판매되며 해외에서도 인사미술공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15,000원(USD 15). 국·영문 병기. insaartspace.or.kr / 문의 02-760-47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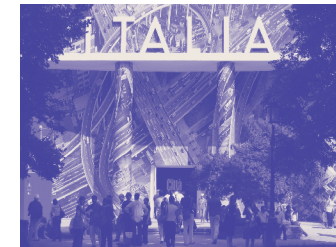
인사미술공간 멤버십 'IN 인미공' 회원 모집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유망작가 전시지원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인사미술공간(이하 인미공)에서 'IN 인미공'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 가입시 인미공 출판물 및 저널 <볼> 50% 할인 구입, 아르코미술관 입장료 50% 할인, 인미공 3층 클럽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각예술 관련자는 물론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비는 없다. 인미공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에 필요한 설문을 작성한 후, 인미공에 직접 방문하여 'IN 인미공' 멤버십 카드와 멤버십 패키지를 받아가면 된다. / 문의 02-760-4729, members@insaartspace.or.kr

2006 올해의예술상 시상식 및 예술축제

한 해 동안 발표된 문학·미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등 7개 분야 작품 중 우수 예술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공연예술분야 수상작품을 지역에서 축제 형태로 재공연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에 대한 격려와 지원, 그리고 소외지역 국민에게 우수예술작품의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올해의 예술상'은 이번이 3회째로 2006년 11월에 본심을 개최하여 수상대상을 최종 결정하고 12월 초순에 수상자(작품)를 발표하여 12월 18(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 또한 2007년 2월 ~ 3월 인천광역시, 충남·북, 전남, 경남·북 등지에서 예술축제를 벌일 예정이다. / 문의 02-760-4696

제10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9월 9일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과 함께 개막됐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설치된 이후 199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회 미술전과 건축전에 참여하고 있다. 9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한국관은 커미셔너 조성룡과 5인의 젊은

건축가들과 함께 '오래된 도시, 순간의 장소(perma n stant)'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현대 도시가 겪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현상에 대해 비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업의 기록으로, 영문 전시제목 'perma n stant'는 그와 같은 형상들을 축약한 것이다. 참여 건축가는 김현·최욱·김승희·신혜원·김찬중. www.korean-pavilion.or.kr

2007년 제52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로 안소연 씨 선정

2007년 6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제52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안소연(1961년생, 현 삼성미술관 리움 학예연구실장) 씨를 선정하였다. 커미셔너로 선정된 안소연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불문과와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큐레이터 학교와 주요 미술관에서 연수했다. / 문의 02-760-4573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착공식 거행

대학로복합문화공간(가칭)의 착공식이 8월 31일 치러졌다. 중소 규모 극장 2개를 비롯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신축하는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사업은 대학로를 살리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대학로의 부족한 중규모 공연장의 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2008년 완공 예정이다. / 문의 02-760-4713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명랑> 등 제작 배포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는 국민의 독서 향수권 신장을 위해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을 비롯, 다양한 프로그램의 '독자와 함께하는 문학향수충확대사업'을 실시해 왔다. '문학나눔 점자책, 오디오북 제작배포사업'은 문학작품을 접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오디오북 <명랑>은 작가 천운영과 함께 성우 전문경, 유경선의 목소리로, 오디오북 <때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는 최하림 시인을 비롯해 배우 안성기, 가수 유열, KBS TV <TV동화 행복한 세상>의 성우 박윤아의 목소리로 입혀진다. 점자책은 강서점자도서관 등 185개 곳에 2~4세트씩 배포되며, 오디오북의 경우 점자책 배포처를 포함하여 기타 장애인단체, 공공도서관, 교정시설, 군부대 등 1,100여 곳에 2~4세트씩 배포될 예정이다. www.for-munhak.or.kr / 문의 02-760-4690

‘문학집배원 도종환 시인과의 만남’ 수신자 25만 명 넘어서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5월 8일부터 문학집배원 ‘도종환의 시배달’을 시행해 왔다. 문학집배원 ‘도종환의 시배달’은 매주 월요일 아침 도종환 시인이 고른 시 한 편을 플래시로 제작해 독자들에게 e-메일로 보내주는 사업으로 독자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어 5개월 만에 수신자가 25만 명을 넘어서었다. 모든 국민이 일주일에 시 한 편 읽는 나라를 꿈꿔온 추진위의 바람대로 시배달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회사의 자체 메일링 서비스로 전 직원이 시를 읽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부쩍 많아졌다. www.for-munhak.or.kr / 문의 02-760-4690

2006 나라음악큰잔치 <적벽대전의 환동> 중국 공연



‘나라음악큰잔치’가 몽골에 이어 2006년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3일 3일간 무한음악학원 편중음악청(실내)과 무한 황학루, 남병산 배풍대, 적벽전 유지(실외)에서 열렸다. 이번 ‘나라음악큰잔치’ 행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같은 맥락을 지닌 중국에서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다. 우리의 판소리 <적벽가>를 적벽 현지에서 부른다는 것은 삼국지에 내재된 지혜를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생산해 낸 거례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는 무대이며, 아울러 중국의 역사문화와 우리의 음악문화가 만나 21세기의 동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문의 02-760-4696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파견 문예인 지원신청 접수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7개월간 해외 주요 교포 밀집지역인 사할린에서 교포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강습할 문예인을 파견하기 위해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사할린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개관된 한인문화센터 및 에트노스 예술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교포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주 16시간 이상의 전통문화 강습 및 인근 지역에 대한 국악강좌 등을 7개월 남짓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칫 일회성 행사로 그치기 쉬운 우리 문화 소개 방식을 지양하고 장기간 강습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한민족 문화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로 운영될 것이다. 이번에 파견할 문예인은 가야금, 사물 등 국악기 및 전통무용에 대한 강습 능력을 갖춘 전통 예술인 2명으로 파견 기간 동안 각각 1천만 원의 지원금(왕복 항공료, 현지 체재비)을 지원받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현지에서 강습에 필요한 악기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 문의 02-760-4571

2006 아시아동반자 문화행정연수에 몽골 등 4개국서 참가

지난 7월 12일부터 ‘2006 아시아동반자 문화행정연수’ 사업이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총 4개국에서 참여하는 이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상투아예술재단의 설립자인 Abu Naser Robii, 미얀마 문화부 문화기구과 차장인 Shwe Shwe, 몽골 예술위원회 기금회계팀장이자 지원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Ichinkhorloo Sosorbaram,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Marichu G. Tellano 등이 참가하였다. 올해로 2회인 이 사업은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 아시아의 관점을 회복하려는 ‘아시아동반자사업’의 취지 아래 아시아 각국의 문화행정기구 예술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주요 지원사업과 시설운영, 예술정책 등에 대한 소개와 직무연수로 진행된다. 연수기간 중 약 5회의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으로, 8월 2일(수), 이들 아시아국가의 예술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문화기관의 문화예술 정책비교’라는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2006 아시아동반자 문화행정연수’는 12월 20일 막을 내린다. / 문의 02-760-4573



서울클래시컬 플레이어즈 Remade Classic Series

21세기 신개념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는 서울클래시컬 플레이어즈(SCP)는 DS HALL 상주 오케스트라 지정을 기념하여 2006년 5월부터 매달 세 번째 금요일에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편곡을 선보이는 ‘SCP Remade Classic(리메이드 클래식)’ 시리즈를 시작했다. 크로스 오버 편곡이 아닌 클래식 음악 본연의 아름다움을 21세기적 음향으로 채색하는 편곡을 통해, 200년 전의 연주 장소와 악기들에 맞추어 작곡된 많은 음악들의 숨겨진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2월까지 계속된다.

눈길 끈 슈만 서거 150주년 기념 음악회들

슈만 서거 15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 공연이 펼쳐졌다. 한양대 교수인 테너 이원준이 7월 4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16곡에 이르는 ‘시인의 사랑’ 전곡을 연주했다. ‘시인의 사랑’은 1840년 클라라와 결혼 직후 만든 사랑의 노래다. 또 배상은·윤철희 부부가 각각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맡아, 7월 7일 금호아트홀에서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3번 전곡, 그리고 클라라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를 연주했다.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내한 공연

고전과 현대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첼로 앙상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가 7월 15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가졌다. 세계 정상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정규 멤버들이지만 각각 곤충학자, 풍수 전문가, 가구 디자이너, 피아니스트, 트롬본 주자, 스노보드 강사, 전문 미술사 등 다양한 이력과 취향을 가져 더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춤’을 주제로 모두 16곡을 연주했다.

‘윤이상 관현악의 밤 in Seoul’



‘윤이상 관현악의 밤 in Seoul’이 9월 1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서울·평양·도쿄·베를린·원헨을 연결하여 진행되는 ‘2006년 윤이상 평화음악축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연에서 윤이상 작곡 〈현을 위한 용단〉과 〈실내교향곡 1번〉 등을 피오토르 보르코프스키의 지휘로 서울바로크 합주단이 연주했다.

정명훈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3’



지휘자 정명훈이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을 맡으며 지난 1월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대장정에 들어간 이후 세 번째 연주로 7월 28일, 30일 예술의전당에서 6번과 7번 교향곡을 연주했다. 30일 공연은 원래 예정에 없었으나 희망 청중이 많아 추가로 마련됐다. 서울의 각 구청과 대학을 찾아가는 무료공연도 계속했다. 이 대장정은 오는 12월 27일 8번과 9번 연주로 마침표를 찍는다.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으로 초심자들에게 손짓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 초심자를 위해 마련하는 ‘마이 퍼스트 오페라(My First Opera)’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라 보엠〉을 8월 12~1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올렸다. 공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객석과 무대의 거리를 좁히고, 입장료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책정했다. 김주현이 지휘봉을 잡고,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가 이의주가 연출을 맡았다. 푸치니의 대표작 〈라 보엠〉은 19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우정과 사랑을 담고 있다.

서울시향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이 9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부지휘자인 로센 밀라노프가 지휘를 맡았고, 오페라 〈코(The Nose)〉 서곡과 〈교향곡 15번 A장조〉 등 쇼스타코비치의 곡으로만 프로그램을 채웠다.

남성 4인조 아카펠라 그룹 ‘칸타빌레’ 내한공연

남성 4인조(카운터 테너, 바리톤, 테너2)로 구성된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칸타빌레의 첫 내한공연이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LG아트센터를 비롯 김해·안산·전주 등지에서 펼쳐졌다. ‘From Madrigal to McCartney’라는 제목을 걸고 16세기 고음악인 마드리갈부터 현대의 대중음악까지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20년 이상 활동해온 유럽의 대표적 아카펠라 그룹으로 단원들은 개별적으로는 뮤지컬·고음악·오페라 및 각종 합창 공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성악가들이다. 이들은 스케일이 큰 관현악곡부터 복잡한 재즈까지 방대한 작품들을 그들만의 변독이는 아이디어로 직접 편곡해왔으며 재치 있는 보컬 테크닉으로 익숙하지만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었다.

제3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제3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이 9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가평군에 자리잡은 자라에서 펼쳐졌다. 국내 25개 팀과 해외 12개국 출신 14개 팀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기간 중 600종의 타악기를 전시하면서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2006 전주세계소리축제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9월 16일~24일 전주한옥마을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개막공연 '환희에 열리다'를 시작으로 3부문 13개 분야에 걸쳐 100여 개의 공연 및 행사가 열렸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월드뮤직 축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 이번 행사의 특징. 전통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판소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공연들이 우선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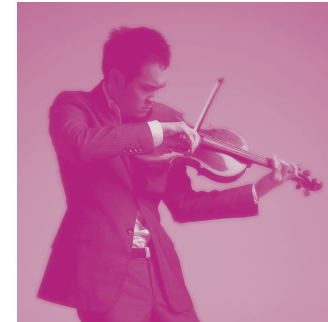
말러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말러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내한해 10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가졌다. 19세에 데뷔해 1996년 베를린 필의 최연소 지휘자로 성가를 높였던 다니엘 하딩의 지휘로 모차르트 교향곡 F장조 K43,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등을 연주했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한 총 4회의 모차르트 콘서트 시리즈가 지난 10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신영옥, 목관 오중주단 빈-베를린 앙상블 등 세계 정상적 음악가가 참여하여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모두 모차르트의 작품들로 이루어졌으며,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비롯, 관악 협주곡, 성악곡, 목관 오중주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리처드 용재 오닐 비올라 리사이틀



링컨 센터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세종 솔로이스츠의 멤버로 활동 중인 재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리사이틀을 가졌다. 용재 오닐은 줄리어드 100년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전액장학금으로 입학한 비올리스트로, 한국전쟁 중 미국으로 입양된 정신지체장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살아온 그의 인생이 감동을 던지기도 했다.

2006 겨레의 노래던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06 겨레의 노래던'은 지난 10월 19, 2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노래던'은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손잡아 국민의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는 통일음악회의 성격을 추구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로열심포니오케스트라의 한-양 혼합구성 관현악 편곡에 맞춰 시작되는 전통연희 '북청사자놀음'이 화려하게 문을 열고 저대, 가야금 등의 협연과 관현악과 무용, 가곡 협연, 동요와 합창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공연이 이어졌다.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만나 연주하는 현대음악

한국전통악기와 서양클래식악기가 함께 순수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실내악단 CMEK(한국 현대음악앙상블)이 3년으로 예정된 '한국현대음악 연주 시리즈'를 시작한다. 시리즈 첫번째는 '6인의 한국음악가'라는 표제 아래 70대 거장 백병동부터 30대 신예 신수정까지 한국의 대표 작곡가 6인과의 공동 작업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다.

백건우와 펜데레츠키, 두 거장 '부활' 협연

10월 19-21일 'KBS교향악단 50주년 기념음악회'가 KBS홀 등에서 열렸다. 폴란드 출신 작곡계의 거장 펜데레츠키가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부활〉을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협연했다. 〈부활〉은 9.11테러를 소재로 해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타악기가 동원되는 대작으로 끝부분에 아무런 반주 없이 성당 종소리가 울려 퍼져 폭력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염쟁이 유씨〉 거듭된 연장 공연 올 연말까지



〈염쟁이 유씨〉가 연장을 거듭해 올 연말까지 공연을 계속한다. 대대로 해온 염습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60대 염장이의 이야기를 담은 이 연극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염장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진하게 묻는다. 지난 2월 국립극장을 시작으로 마로니에극장 등을 거쳐 대학로 두레홀1관으로 옮겼다. 지난 5월 ‘2006년 서울연극제’에서는 관객이 뽑은 인기상을 받기도 했다. 인기의 비결은 염쟁이 유씨, 조직폭력단의 우두머리와 그의 부하들, 장례 전문업체의 대표이사 등 15명을 헤아리는 다양한 인물을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며 혼자서 소화해낸 배우 유순웅의 연기력이라는 평가다.

손튼 와일더의 〈우리 읍내〉 연극과 뮤지컬로 나란히

미국 극작가 손튼 와일더의 풀리처상 수상작 〈우리 읍내(Our Town)〉가 비슷한 시기에 연극과 뮤지컬로 무대에 올라 비교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국립극단의 〈우리 읍내〉(7.21-8.6)는 원작의 배경인 미국 중서부 소읍을 경기도 가평으로 바꿔 향토색 짙은 연극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극단 나무와 물의 〈우리 읍내〉(7.25-8.27)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흥겨운 탭댄스, 리드미컬한 마임을 담은 뮤지컬로 연극과는 또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탄생과 사랑, 결혼,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순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떠들썩한 과장 없이 잔잔한 시선으로 풀어놓는 작품 〈우리 읍내〉는 1938년 미국 초연 이후 전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며 ‘일상의 위대함’을 설파해왔다.

제1회 성남국제무용제, ‘관람’ 아닌 ‘참여’ 표방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1회 ‘성남국제무용제’가 개최되었다. 일본·중국·러시아·이탈리아와 국내 무용단들이 참가해 성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공원과 율동공원 그리고 탄천 등 성남 일대에서 다양한 무용 공연을 펼쳤다. ‘환경과 춤(Green Dance)’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각각의 공연은 장소의 특성을 살려 각각의 테마를 내걸었다. 이번 무용제의 특징은 ‘관람’보다도 ‘참여’를 표방하여, 무용을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일반인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담았다는 데 있다. 비보이 댄스나 하회탈춤 등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고, 각종 댄스 동호회들의 자발적 공연도 잇따랐다. 오페라극장에서의 마지막 공연이 끝난 후 야외에서 관객들이 직접 춤을 따라하며 들뜬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9회 서울변방연극제 ‘연극, 디자인하다’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기반으로 한 젊은 연출가들의 연극제인 ‘서울변방연극제’가 9회째를 맞이했다(9.8-9.24). ‘연극, 디자인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극장공연과 대안공간 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공간 실험의 확장으로 인사동 썸지길, 마로니에 공원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극장’이라는 연극적 공간

국악뮤지컬 〈한네의 승천〉

국악뮤지컬 〈한네의 승천〉이 경기도립국악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무대에 올랐다(8.17-8.20). 경기도립국악단, 경기도립무용단, 경기도립극단과 뮤지컬배우, 남사당예인 등 80여 명이 출연하고, 1975년 초연 당시 음악을 맡았던 김영동 예술감독이 30년 만에 지휘봉을 잡았다. 한국의 제례문화와 외줄타기공연, 농악무 등의 연희문화를 통한 흥의 정취, 그리고 우리의 전통 가락과 현대적 감성을 담아 재구성한 한국적 뮤지컬로 초연 당시 〈사랑가〉, 〈한네의 이별〉 등 초유의 국악가요 히트곡을 내놓은 기록을 갖고 있다. 남사당패에서 줄타기를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젊은 여인 한네가 이승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해 삶의 좌절을 느끼고 두 번이나 선녀담에 몸을 던져 저승에서 낙원을 찾는다는 설화적인 이야기다.

18회째 맞는 거창국제연극제

중앙 집중적인 문화예술의 흐름을 깨고 지방에서도 예술축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거창국제연극제’가 18회째를 맞으면서 국내 예술축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축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7월 18일부터 8월 16까지 진행된 올해 행사에서 10개국 47개 극단에서 총 208회 공연을 벌였다. 국내경연과 초연 희곡 공모전도 병행하여, 국내 경연에서는 극단 수의 〈이름을 찾습니다〉가 대상에, 초연 희곡 공모에서는 한숙희의 〈범재리의 풍경〉과 김수미의 〈녹색태양〉이 우수작에 선정됐다.

〈미스 사이공〉 한국 상륙

〈오페라의 유령〉·〈레미제라블〉·〈캣츠〉와 함께 ‘빅4’ 뮤지컬로 꼽히는 〈미스 사이공〉이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올랐다. 5개월 여에 걸친 혹독한 오디션 거쳐 신인배우를 주인공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부터 화제를 모았고, 올해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된 뮤지컬 가운데 가장 많은 표가 팔린 작품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성남아트센터(6.28-8.20)와 세종문화회관(9.1-10.1)에서 공연됐다.

제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제9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2006)’가 한국을 포함해 총 10개국 31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5개 주요 극장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넘나드는 41개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한국은 물론 프랑스 다니엘 라리의 무용단과 영국의 랜덤무용단, 쿠바·핀란드·싱가포르·일본·타이완·홍콩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참가하여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였고, 우리 무용과 외국 무용이 한 무대 위에서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김민기의 노래극 〈개똥이 2006〉



김민기 작, 연출의 노래극 〈개똥이 2006〉이 학전블루 소극장 무대에 올랐다(10.24-11.19). 〈개똥이〉는 1995년(예술의전당 토월극장)과 1997년(문예회관 대극장) 두 번의 공연에서 한국평론가협회 음악극 부분과 백상예술상 기술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 바 있다. 1987년 음반 〈개똥이〉로 발매될 만큼 완성도 있는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김민기 특유의 서정적인 곡들과 실험적인 노래들이 담겼다.

뮤지컬 〈라이온 킹〉 공연 돌입

동명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각색한 〈라이온 킹〉이 서울 샤롯데극장에서 10월 28일부터 공연에 들어갔다. 1997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고, 1998년 토니상 작품상과 최우수 연출상을 비롯해 6개 부문을 휩쓴 세계적인 화제작으로, 광활한 아프리카의 초원과 동물들의 모습을 뮤지컬 무대에 옮기면서, 오리지널 연출가인 줄리 테이머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했다. 엘튼 존이 음악을 맡았다. 국내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 샤롯데의 개막작으로 일본 극단 시키씨어터컴퍼니가 〈라이온 킹〉을 올리며 국내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공연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국내 뮤지컬 관계자들은 한국뮤지컬협회를 출범해 시키의 국내시장 진출을 ‘문화적 침략’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Network

전시
EXHIBITION

윤보 김기창 5주기 기념전, 필담 자료도 공개

2001년 1월 타계한 윤보 김기창의 5주기를 기념해 제자들이 마련한 전시 ‘한국화-근원과 확산’전이 9.13-22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열렸다. 윤보의 제자들로 구성된 윤사회(회장 이영복)의 제5회 정기전을 겸한 이번 전시에서는 어려서 청각을 잃은 윤보가 수화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썼던 필담 자료 20여 점이 공개돼 윤보의 인간적인 면과 작가로서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태양을 먹은 새〉·〈나비의 꿈〉 등 개인소장이 갖고 있던 윤보의 소품 20여 점이 함께 전시됐다.

유포피아-이탈리아 판화 400년전

르네상스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장된 오리지널 판화 120여 점을 소개하는 ‘유포피아-이탈리아 판화 400년’ 전시가 8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아주미술관 2006년 특별기획전으로 열렸다. 르네상스 미술부터, 바로크 미술, 신고전주의 미술, 그리고 낭만주의 미술까지 근대 미술의 등장 이전의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판화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미켈란젤로·라파엘·로렌조 기베르티 등 15-19세기에 활동한 화가·건축가·조각가의 작품을 당대나 그 후에 판화로 창작한 것이다.

양혜규 개인전 ‘사동 3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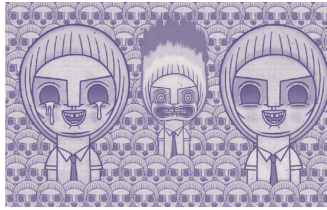
인천의 사동에 위치한 버려진 한 작은 폐가를 오브제로 하는 양혜규 개인전이 8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렸다. 벽지가 내려앉고 지붕에 군데군데 구멍이 난 망가진 집을 전시장으로 택하고, 새로 무엇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안팎의 쓰레기를 치워내는 것으로 만들어낸 ‘역설적 설치작업’이다. 작가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존립 근거를 잃은 채 서 있는 이 집의 형상과 현재를 사회와 일상의 모든 판단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는 절대적 장소로서 제시했다.

프랑스 현대 패션사진전 ‘시어터 오브 패션’



샤넬·크리스찬 디오르·장 폴 고티에·이세이 미야키·소니아 리키엘 등 세계적 디자이너들의 옷을 전문으로 찍는 파리의 패션 사진작가 16명의 ‘작품’을 모은 ‘프랑스 현대패션사진전’이 경복궁 옆 대림미술관에서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렸다. 참여 작가들은 프랭크 페랭·데보라 튀르브빌·사라 문·프랑수아즈 위기에·제라르 위페라 등으로 파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패션 사진가들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보는데다가 누구나 즐기는 장르이면서도 예술적 가치는 저평가되어 왔던 패션사진의 예술성을 환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로댕갤러리 '사춘기 징후' 전



90년대 이후 주변부 하위문화로 관심을 돌린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사춘기적 성향을 발굴·조명한다는 취지로 '사춘기 징후'전이 서울 태평로 로댕갤러리에서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렸다. 회화·조각·설치·사진·영상·만화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는 12명의 신진·중

견 작가 작품들을 통해 90년대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다채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한국 현대미술의 폭발성과 에너지를 드러냈다.

제14회 서울 공간국제관화비엔날레 수상작 전시

국내 유일의 국제관화전인 서울 공간국제관화비엔날레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간 수상작 전시회를 열었다. 공간그룹과 서울시립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관화비엔날레에는 세계 55개 나라에서 756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대상 1점과 우수상 2점을 포함하여 총 99개 작품이 수상권에 들었다. 대상은 폴란드 작가 마르타 레흐의 〈20.09〉가 차지했으며, 룩셈부르크 작가 이사벨 루츠의 〈Five Senses...Ⅱ〉와 미국 작가 마이클 고로의 〈Urban Serenity〉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종이로 만든 미술관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으며, 한국건축의 윤경식 대표가 협업했다. 미술관 내부에는 '여자를 밝히다'와 '브랜드를 밝히다'라는 두 가지 컨셉트의 전시가 펼쳐지고, 이번 전시를 위해 미술·디자인·패션·광고 등 전분야에서 손꼽히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60인이 새롭게 제작한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디자인하우스 창립 30주년 기념 작업으로 9월 15일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이 개관하여 연말까지 전시 운영된다. '페이퍼테이너 뮤지엄'은 종이와 컨테이너 박스를 주 소재로 활용해 미술관 건물 자체를 지은 신개념 미술이다. 미술관의 설계는 세계적 건축가 시게루 반이 맡았

오윤 20주기 추모전 '낮도깨비 신명마당'

판화가 오윤의 작고 20주기를 맞아 추모전 '낮도깨비 신명마당'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9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렸다. 목판화 외에 테라코타 조소와 드로잉, 회화 등이 함께 전시돼 그간 부각되지 않은 오윤의 다양한 면모를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판화가, 민중미술의 대부 등 단면만 부각된 채 변변한 평전, 논문 한 편 없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비운의 작가 오윤을 재조명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작품 외에도 목판 원본과 작가노트, 유품 등이 함께 전시되고 부대행사로 오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도 열렸다.

장 바스키아 전

그래피티를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작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전시가 사간동 국제갤러리에서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렸다. 세계적인 현대미술제인 독일 '카셀 도큐멘타(1982)'와 미국 '휘트니 비엔날레(1983)'에 최연소 작가로 초청받던 바스키아는 28세에 요절해 신화가 되었다. 특유의 유머와 냉소를 담은 전시 작품 중에는 50호 이상 대형 작품들이 많았다.

삼성미술관 리움 '조선 말기 회화' 전

조선 말기 회화를 최초로 집대성한 기획전 '조선말기회화'전이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10월 19일부터 2007년 1월 28일까지 열린다. 김정희·장승업·허련·안중식·김수철·전기·조희룡·홍세섭 등 격동의 시기를 누볐던 화인들의 산수, 인물, 화조, 영모, 사군자, 글씨 등의 대표작 80여 점이 망라되었다. 전통 화원풍 그림, '신감각파'로 불리는 19세기 중엽 중인들의 현대적 화풍 등의 '화원, 전통, 새로운 발견'의 세부 주제로 묶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전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24일부터 2007년 3월 18일까지 '루브르 박물관'전을 연다. 전시장 벽을 루브르의 전시 회랑을 따라 놓은 듯한 열개로 구성하고 16-19세기 서양 미술사를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을 배치했다. 르네상스 말기의 매너리즘에서부터 인상파의 전조가 되는 코로의 풍경까지 서구적 관점에서 미술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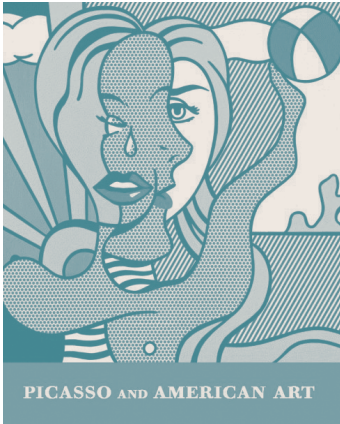
'쌘지, 앤디 워홀을 만나다' 전



팝아트의 아이콘적 아티스트인 앤디 워홀과 그의 아이디어, 작품 이미지를 주제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한 국내 젊은 작가 50여 명의 신작을 선보이는 'Wake Up Andy Warhol_쌘지, 앤디 워홀을 만나다'전이 10월 25일부터 2007년 1월 25일까지 갤러리 쌘지에서 열린다. 앤디 워홀의 작품 세계가 국내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세계에 어떻게 표출되는지 보여주는 이색적인 전시로, 제1전시실에서는 앤디 워홀의 작품을, 제2전시실에서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 중 평면 작품을 전시한다.



미국 미술관 변신의 신호탄 휘트니 미술관의 피카소 전



‘피카소와 미국 미술(Picasso and American Art)’전이 휘트니 미술관에서 9월 28일부터 2007년 1월 28일까지 열린다. 주최측에서 “지난 세기 파블로 피카소가 미국 미술의 발달에 끼친 근본적인 영향을 점검하는 획기적인 전시”라고 자평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맥스 웨버·스튜어트 데이비스·아실 고르키·존 그레이엄·윌렘 드쿠닝·잭슨 폴록·앤디 워홀·로이 리히텐스타인·재스퍼 존스 등 다양한 그룹의 미국 작가 작품을 피카소의 작품들과 나란히 전시하며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 전시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과 미니

애플리스의 워커아트센터로 순회전도 가질 예정이다.

이 전시에 뉴욕의 언론이 주목한 한 가지 이유는 쟁쟁한 미술관들이 모여 있는 뉴욕에서 휘트니 미술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뉴욕의 대형 미술관들은 하나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미술관(MoMA)의 새 건물은 훌륭하지만 너무 좁고, 클래식으로 분류되는 걸작들만으로도 장소가 차고 넘친다. 구겐하임 역시 마찬가지로 비좁은 장소와 뉴욕에서의 경쟁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보워리에 훌륭한 새 건물을 짓고 있지만 크레믈린처럼 경직된 면이 있어서 융통성 있게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휘트니 미술관은 약 5년간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다가 2003년에 테이트 모던 출신 인물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들을 영입하고 지난 여름에는 매디슨 애비뉴의 본관에 새로운 건물을 추가할 계획도 세웠다.

뉴욕의 4대 미술관은 모두 관객을 끌어들이고 재단의 이사들을 만족시킬 아티스트와 ‘이즘’을 찾아 이동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인상주의 미술을 가장 선두에 내세우고, 구겐하임의 중요 인물은 전통적으로 칸딘스키였다. MoMA에도 핵심 인물이 있다. 바로 피카소와 마티스다.

휘트니가 가장 편애하는 인물은 에드워드 호퍼였다. 그렇지만 현재 휘트니는 다양한 작품이 섞인 ‘피카소와 미국 미술’이라는 전시를 가지고 미술관 사이의 파워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다. 당연히 이 전시에는 걸작들이 다수 출동했지만 ‘피카소가 미국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기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피카소 등 다른 화가의 스타일을 치명적일 만큼 많이 받아들인 시기가 있었으나 이들은 얼마간의 시간을 거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한 것을 재해석하여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만들어냈다. 아실 고르키는 추상 표현주의로 직행한 독특한 스타일을 들고 나왔고 스튜어트 데이비스는 초기 팝아트적인 미술을 창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피카소의 역할만이 지대하다는 인상을 주는 이번 전시는 관객에게 그릇된 정보를 준다는 지적도 있다.

〈빌리지 보이즈〉의 비평가 제리 솔츠는 휘트니 미술관이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거대하고 환상적인 런던의 테이트 모던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 업타운에 별관을 더하여 다른 미술관과 싸우려 하지 말고 패러다임을 바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디슨 애비뉴의 본관은 60년대까지의 미국 미술에 전적으로 할애하고, 웨스트사이드에 대형 별관 ‘휘트니 모던’을 개관하여 현대 미술에 치중할 것을 추천했다. 그런 식으로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고 뉴욕을 예술의 도시로 유지하게 뒷받침해온 시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뉴욕의 미술관들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장품과 전시의 구성, 또 새로운 공간을 통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해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아직 뉴욕만큼 개별 미술관의 독특한 특성이나 전시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미술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니멀리즘에서 모차르트까지” 넥스트 웨이브 페스티벌

뉴욕 하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대형 미술관을 먼저 떠올리지만 뉴욕에서는 실제로 연극에 오프브로드웨이와 오프-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이 있듯이 음악·전시·무용 등 다방면에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 활동이 끊이지 않는다.

‘넥스트 웨이브 페스티벌(Next Wave Festival)’은 올해로 24주년을 맞는 축제로서 전 세계에서 같은 이름으로 열리는 실험·전위예술 축제들의 시발점 구실을 했던 유서 깊은 행사다. 올해는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BAM)과 BAM 하비 극장(BAM Harvey Theater)에서 10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음악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흥미진진한 공연들을 펼쳐놓는다.

주최측은 이 페스티벌이 흑인 음악인 아프로비트(Afrobeat)에서 오페라까지, 미니멀리즘에서 모차르트까지 폭넓게 수용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그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축제의 일부로 21세기판 〈돈 지오반니〉가 있고, 러시아 극단이 상연하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십이야〉와 콘서트·팝 오페라·무용·무용극·멀티미디어 작품과 현대성을 가미한 입센의 연극까지 매우 다채롭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준비되었다. 18가지 주요 공연 프로그램에 더하여 자선행사, 라이브 음악, 영화 상영과 비주얼 아트 프로그램 등이 곁들여진다.

그 중에는 현대무용의 거장 피나 바우쉬와 메레디스 몽크의 공연도 있다. 피나 바우쉬는 12월 10일과 12일에 〈Nefes〉가 예정되어 있고, 메레디스 몽크는 11월 1일에서 5일까지 〈Impermanence〉라는 음악극을 무대에 올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뉴욕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작품에서는, 음악과 비디오와 무용이 어우러지며 비범한 무대를 연출했다. 공연은 앞쪽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클로즈업된 얼굴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시작되고, 연출과 작곡을 맡은 몽크 본인을 비롯한 싱어 겸 댄서들이 등장하여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의미를 담은 어구와 문장을 읊조리며, 함께 춤을 춘다. 삶과 죽음에 대해 명상하며 시간의 흐름을 환기시키는 내용에 형식 면에서는 부드러운 와트가 넘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미술계에 활력 불어넣는 ‘프리즈 아트페어’

매년 10월 런던의 리젠트 파크에서 열리는 ‘프리즈 아트페어(Frieze Art Fair)’는 세계 150여 곳의 현대미술 갤러리들이 모여 작품을 전시하고 주최측에서 특별히 의뢰한 아티스트들의 프로젝트와 야심찬 교육, 음악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선보인다. 2003년 현대미술 전문잡지 <프리즈(Frieze)>의 주도로 시작된 이 행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로 단 4회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트페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는 점이다. 독일의 쾰른이나 프랑스의 피악(FIAC) 등 역사가 오랜 국제 아트페어들도 고전하는 상황에서, 초대된 갤러리와 작품의 수준이 바젤 아트페어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 것이다. 프리즈 아트페어는 영국 현대미술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프리즈 아트페어가 운영 면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실험적인 작품을 소개하여 상업성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주고, 유망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테이트모던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2006년에는 15만 파운드의 기금으로 12명의 작품을 구입), 작품 구입 의사가 없는 대다수의 관람객과 VIP를 구분하여 실제 구매력이 있는 고객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점 등이다.

2006년 행사는 10월 12부터 15일까지 21개국 152개 갤러리들의 참여로 진행되었고 미술계 전문가들과 참여 작가, 방문객들로부터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트페어와 동시에 런던의 여러 갤러리와 미술관, 경매장에서 블록버스터 전시와, 오프닝 행사, 경매와 파티 등이 활기 있게 어우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pkm 갤러리가 유일하게 참가하여 작가 배준성이 올해부터 새롭게 내놓은 렌티큘러 회화 작품 40여 점이 판매되며 주목을 받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예술가들에게 첫 공연 기회 제공하는 ‘런던 재즈 페스티벌’

10월의 미술축제에 이어 11월 런던은 음악의 선율에 빠져든다. BBC 라디오 3 방송국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런던 재즈 페스티벌(11월 10-19일)’에서는 재즈의 명곡들과 차세대의 훌륭한 곡들이 연주되고, 국제적인 아티스트들과 재능 있는 자국 출신 재즈 음악가들의 공연이 풍성하다. 14년을 이어온 전통 중 한 가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예술가들에게 신선한 작업을 의뢰하고 협력하며 첫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30군데의 공연장에서 대규모 재즈클럽 프로그램과 젊은 층을 위한 특별 콘서트, 대담, 교육 프로젝트 및 영화 상영회 등 150회 이상의 행사가 열리며,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선보인다. 이제는 영국 문화계의 주요 행사로 자리잡은 ‘런던 재즈 페스티벌’의 올해 프로그램 역시 재즈의 전통을 밀도 있게 펼쳐 보이고, 재즈의 경계와 인식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청중을 끌어들이었다.

장기 보수 마치고 새로 개관한 보데 미술관



보데 미술관(Bode Museum)이 6년에 걸쳐 2억 3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인 보수작업을 끝내고 새로 문을 열었다. 슈프리 강 위로 솟아나온 미술관의 돔형 건물 자체가 예술로 평가받는 보데 미술관은 102년 전 황제 빌헬름 2세가 개관했으며 당시 명칭은 카이저 프리드리히 미술관이었다.

이제 보데 미술관은 독일 역사에 있었던 전쟁과 파괴와 오랜 분단의 흔적들을 지우고 모든 소장품을 제대로 전시할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의 주요 소장품으로는 세계 최고의 콧미술품을 비롯한 중요한 기독교 미술품과 17,00여 점에 달하는 조각품이 있고 독일에서만 볼 수 있는 비잔틴 시대의 보물 300여 점과, 기원전 6세기의 동전부터 21세기의 유료화까지 화폐 종류와 메달 50만 점 등이 있다.

이번 개보수 작업은 슈프리 강 위에 주요 미술관들이 모여 있는 뮤지엄 아일랜드 단지 계획의 일부분이다. 독일 정부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이곳의 구국립미술관과 신국립미술관, 페르가몬 미술관, 보데 미술관을 전면적으로 재단장하여 문화의 도시로서 베를린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브레히트는 여전히 새롭다-서거 50주년 기념 행사 풍성

브레히트 서거 50주년을 맞아 독일에서는 연초부터 브레히트 관련 축제와 다양한 행사가 줄을 이었다. 2006년 2월 24-3월 5일까지 독일 뎃사우에서 열린 제14회 ‘바일 페스티벌(Weill Festival)’에서는 콘서트와 연극 상연, 강연과 낭독회 등 40여 가지 행사를 통해 <서푼짜리 오페라>를 비롯한 작곡자 바일과 브레히트의 공동작업을 기념했다. 그의 고향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7월에 여러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국제 브레히트 축제’를 열었고, 베를린 역시 서거일이 있는 8월을 정점으로 브레히트 열기에 빠져들었다.

베를린에서 공연된 2006년판 <서푼짜리 오페라>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스타들을 많이 기용하여 호화 캐스팅으로 준비되었다. 우선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출연했던 오스트리아 배우 겸 연출자 클라우스 마리아 브랜다우어를 연출자로 영입했고, 브랜다우어는 펑크 가수이자 독일 밴드 ‘Die Toten Hosen’의 간판 스타 캠피노를 기용하는 등 대중적이면서도 새로운 버전의 음악극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연 후 비평가들은 대담한 시도 없이 지나치게 평범하고 활기 없는 공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워낙 공연 전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고, “비판 없이 브레히트를 무대에 올리는 것은 배신”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각 나라와 사회 현실에 따라 다양하게 재해석되는 것이야말로 브레히트 작품이 가진 생명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Network

VENICE

베니스

도시 · 건축 · 거주자 상호작용 모델 탐구한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살고 있으며,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 수치가 75%까지 증가할 것이므로 도시 건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된 것이다.

약 6천 평방미터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단일 건축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아르세날레의 코르데리에(Corderie) 빌딩과 지아르디니(Giardini) 공원의 비엔날레 가든 및 베니스 시내 곳곳의 전시 공간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본 전시와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개설된 이탈리아관의 전시·워크숍·회의·교유행사 등이 어우러졌다.

리처드 버데트가 큐레이팅한 ‘도시·건축·사회(Cities, architecture and society)’전은 대규모 메트로폴리스가 직면한 이주와 이동이라는 이슈에 집중하되, 이동성의 발달부터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개발과 함께 따라다니는 불확실성도 다루었다. 제노바의 항구에 대한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프로젝트는 이탈리아의 도시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50여 개국이 참가한 국가별 전시관에서는 건축가와 계획자, 설계자들이 세계의 서로 다른 도시의 복잡한 문제들에 반응하는 독특한 방식과 관점을 제공했다. 각각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스프롤 현상, 탈산업화와 사회적 변화 등 현대 생활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도시 건축 프로젝트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극단적인 교외화, 아시아의 전형적인 도시 확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 철폐 후 인종 문제, 이탈리아의 도시에 대한 새로운 비전 등이 다루어졌다.

비엔날레 측은 상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몇몇 도시의 시장과 대표들을 초대하여 워크숍(9월 6일)을 열고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대도시 지역의 변화와 미래의 역할을 논의했다. 또한 비엔날레 사상 최초로 (렌조 피아노·리처드 로저스·노먼 포스터·마시밀리아노 폭사스·자하 하디드·렘 쿨하스·자크 헤르초크·파울로 포르토게시 등)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최고의 건축가들과 방문객들이 만날 수 있는 대담의 자리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베니스비엔날레 제10회 국제건축전은 세계 130여 개 도시의 모습을 사진들과 건축 작업들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건축과 도시 설계가 잠재적으로 더욱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세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끝으로,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수여하는 평생공로 부문 황금사자상(Golden Lion for Lifetime Achievement)은 (피렌체 출신) 리처드 로저스에게 돌아갔고, 〈21세기 도시를 위한 의제(Agenda for XXI Century Cities)〉가 발간되었다.

베니스비엔날레 ‘제10회 국제 건축전’(9.10-11.19)의 주제는 세계적인 도시화 추세와 도시의 변화를 좌우하는 건축으로 정해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시와 건축과 거주자 간의 상호작용 모델들을 탐구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진행되는 유형의 문제들에 집중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Network

TOKYO

도쿄

실용 예술의 축제 ‘도쿄 디자인 위크’



도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쿄 디자인 위크’라는 타이틀을 걸고 거리와, 카페와, 미술관에 디자인 관련 전시를 열고 방문객을 맞아들였다. ‘도쿄 디자인어스 위크’, ‘100% 디자인전’, ‘디자인 타이드’, ‘스웨덴 스타일’ 등 네 가지 행사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진구 가이엔에서 열린 ‘도쿄 디자인어스 위크’는 갤러리와 카페, 숍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건을 파는 ‘Shop Exhibition’, 기업체와 디자이너들이 동일한 크기의 컨테이너를 기발한 방법으로 장식하는 ‘Container Ground’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컨테이너 전시는 조명과 소리와 비주얼이 어우러진 쇼를 보여주므로 매년 큰 인기를 끄는 전시다.

영국에서 시작된 행사의 일본판이라 할 수 있는 ‘100% 디자인 도쿄’ 전에서는 엄선된 개인 디자이너들과 제조업체들을 모아 대규모 인테리어 디자인 전을 선보였다. 인기 있는 웹포털 디자인붐(Designboom)은 다시금 ‘마트’라는 숍을 열어서 다양한 디자이너의 제품을 현장에서 구입할 기회도 제공했다.

‘디자인 타이드’의 주제는 ‘디자인과 평화’였다. 주요 행사는 ‘Tide Exhibition’으로 55명의 참가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꾸렸다. ‘Treasured Trash’전은 환경친화적인 전시로서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할 때 디자인이 발휘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스웨덴의 문화와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와 행사 ‘스웨덴 스타일’은 올해 ‘또 다른 천국(Another Paradise)’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모리무라 야스마사, 이제 남성의 모습으로 나서다

지난 20년 동안 모리무라 야스마사는 반 고흐·마네·렘бран트 등의 명화 속에 자신의 얼굴을 넣거나 마릴린 먼로, 비비안 리 등으로 분장하여 사진의 피사체가 되는 작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도쿄의 슈고야츠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 ‘Season of Passion/A Requiem: Chapter I’에서는 1970년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가 미시마 유키오, 1963년 잭 루비에게 총격을 당하는 리 하비 오스왈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속의 남성으로 분하여 사진 속에 등장한다. 함께 제작된 비디오에서는 모리무라는 미시마 유키오가 자살하기 직전 했던 연설을 모방하여 열정적인 연설을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예술계를 공격한다. 그는 오늘날의 예술계가 “매스미디어의 곡조에 맞춰 춤을 춘다”고 비난한다. 〈재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여배우 시리즈 등을 통해 일본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적인 가치를 포용하는 작업을 해왔으나 그간 일본 사회가 20세기의 일본을 창출했던 남성적인 가치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이제 남성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모아 예술 속에 배치하고 싶었다”고 한다.